

[보도자료] 쿠팡,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중소상공인 특별기획전’ 2년째 상생 행보 이어가

2023. 3. 13.



- 지난해 상생기획전 참가 업체 매출 전년 대비 43% 상승 중소기업인 높은 판매 성과 기록
- 마켓플레이스 입점 중소기업인도 참여 가능 중소기업유통센터 판판대로에서 신청
- 광고마케팅, CS, 입점품평회 중소기업인 온라인 판로 확대 적극 지원

2023. 3. 13. 서울 - 쿠팡은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손잡고 ‘중소상공인 특별기획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은 이번 기획전은 오늘(13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며 쿠팡의 상생전문관인 ‘착한상점’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올해는 로켓배송에 입점한 중소기업인뿐 아니라 쿠팡 마켓플레이스의 오픈마켓 중소기업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업신청 채널인 ‘판판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쿠팡은 중소기업인 상품을 최대 20% 할인 프로모션 및 광고마케팅을 지원한다. 로켓배송 입점 업체의 경우 배송부터 반품, 고객 사후관리까지도 지원한다.

입점품평회를 통해 더욱 많은 중소기업인에게 판로 확대의 기회도 제공한다. 쿠팡에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노하우와 그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열린 ‘중소상공인 특별기획전’은 2022년 한 해 동안 809개 소상공인 업체의 6,823개 상품이 참여했다. 참여 업체들의 매출은 전년 대비 43%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조사한 전국소상공인 매출액 성장률 평균인 11.9%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쿠팡은 중소기업들의 온라인 진출 활성화 및 매출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쿠팡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판매 노하우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와, 대표적인 상생우수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윈윈터 페스티벌’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대국민 소비촉진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며 중소기업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에 기여해왔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따르면 행사에 참여한 여러 온라인 쇼핑몰 중 쿠팡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좋은 판매 성과를 기록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